

2017 신년메세지

나는 맞고 남은 틀리다라고 말하는 종교적 신앙에서 탈피하는 교회

[요한계시록 12:14]

그러나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가지고 광야에 있는 자기 은신처로 날아가서, 거기에서 뱀을 피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부양을 받았습니다.

1. 요한계시록 12장의 설명

(1) 배경

하늘에서 있었던 큰 영적전쟁에 대한 설명이다. 등장인물은 해산의 진통 가운데 있었던 여자와, 그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삼켜 버릴 용이 있었다. 왜 아이가 중요하냐면, 이 아이는 장차 쇠망치로 만국을 다스릴 분이었기 때문이다. 내용상 사탄으로 상징되는 용에게 치명적인 존재가 된다. 그리고 아이는 별안간 하늘의 보좌로 올려갔고, 아이를 해산한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갔다. 바로 그 때 하늘에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난다. 이 전쟁을 통해 용은 하늘에 더 이상 발 붙일 곳이 없기 때문에 땅으로 쫓겨난다.

[요한계시록 12:9]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 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땅으로 쫓겨난 사탄의 목표는 아이를 낳았던 여자를 추적하는 일이었다. 14절에 나온 말씀처럼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가지고, 광야에 있는 은신처로 날아가서 뱀을 피한다. 광야로 피신한 여자를 놓친 뱀은 몹시 분노한다. 그리고 다시 여자의 자손들과 싸우기 위해 떠나간다.

[요한계시록 12:17]

그래서 그 용은 그 여자에게 노해서, 그 여자의 남아 있는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떠나갔습니다.

(2) 여자는?

보이지 않는 영적세계에 대하여 성경은 말한다. 더 나아가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사탄의 존재와 하늘의 전쟁에 대하여 이야기 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분명한 것은 ‘사탄’은 존재한다는 것이고, 사탄은 여자가 낳은 아이와 그 자손들의 존재를 두려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근원의 역할을 했던 여자를 죽이기로 하였다. 그렇다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었던 여자의 정체는 무엇인가? 성경의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여자는 ‘교회’를 말한다.

* 한 몸의 원리 - 아담과 하와 (진정한 한 몸 : 하와의 역할은 남편 아담을 돕는 역할)

에베소서 5장의 신랑과 신부는 한 몸을 말한다.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를 비유한다. 교회는 신부이며, 신부의 역할은 신랑 예수님을 돕는 일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교회’인 것이다. 특히 어떤 교회인가? 마지막 이 땅에 분을 내어 내려간 사탄과 전쟁을 하게 될 교회를 말한다.

2. 마지막 때 교회의 특징

(1)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

주목할 점은 사탄의 공격의 표적이 된 여성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에 있는 자기의 은신처로 날아갔다는 것이다. 여인이 받은 독수리의 두 날개가 여인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임에 틀림없다. 마지막 때 교회 가운데 주어지는 독수리의 두 날개는 무엇인가?

(2) 두 날개가 있어야 날아 오를 수 있다.

모든 날짐승들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독수리의 날개인 점을 생각 할 때, 굉장히 힘있고 역동적인 날개임에 틀림없다. 날개의 특징을 알아야 한다. 아무리 독수리라 하더라도 한 날개만 있다면 날아 오를 수 없다. 날개는 반드시 양쪽 날개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날아 오를 수 있다.

두 날개는 ‘균형’ 을 말한다. 두 날개 모두가 힘이 있어야 제대로 날 수 있다. 한 날개는 강하고, 한 날개는 약하다면 독수리 자체가 균형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날아도 위태한 비행이 될 것이다. 두 날개가 있어야 바람을 탈 수 있다. 독수리는 많은 날개짓을 하지 않는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큰 두 날개를 펼치고, 바람을 타는 비행을 한다. 그래서 독수리에게 큰 두날개는 아주 중요하다.

(3) 균형을 이루어야 할 교회

이제 무엇보다 ‘균형’ 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미래 사회의 특징은 모든 것이 ‘양극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극단적인 일’ 들이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와 샌더스는 전혀 다른 성향의 극단적 사람들이다. 한국의 사정도 마찬가지이다. 극단적 우파와 좌파와의 심각한 극단적 대립에 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의 대선문제는 우파도 좌파도 아닌 ‘중도’ 층이 어디에 설 것인가에 따라 판가름이 날 것이라고 예측한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말씀을 중심으로 한 ‘복음주의’ 진형과 ‘성령’ 을 중심으로 한 ‘케리스마틱’ 진형이,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성과 학문적인 아카데미한 영역을 강조하는 진형과, 필드의 경험을 우선시 하는 진형과의 각을 선 대립이 있다.

심각하게 자기가 선호하는 한 쪽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하나’ 가 되어 비행을 할 수 없다. 서로의 진형의 장점을 보기 보다는 약점만을 보며, 그 약점 때문에 같이 할 수 없다고 말한다. 가정도 마찬가지이다.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한 날개가 되어 있어야 자녀가 바로 될 수 있다. 그러한 가정은 제대로 된 비행을 할 수 있다.

(4) 균형이란 ‘하나됨’ 을 아는 것이다.

나 혼자 설 수 없음을 아는 것이다.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그 예는 바로 아담과 하와의 하나됨이다.

[창세기 2:18]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십자가는 하늘과 땅이 하나되는 균형점이다. 예수는 그 균형을 이루신 분이시다. 흔들렸던 모든 것이, 예수님이 만드신 십자가 위에서 균형을 이루었다. 바로 그 때가 안정이 된다.

3. 2017년은 연약한 영역의 날개가 보완되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

(1) 연약한 영역을 인정하고 나에게 없는 부분을 배우려고 노력하라.

(2) 나는 옳고 남은 틀리다라는 종교적 신앙에서 벗어나야 한다.

(3) '균형'에 대한 사고는 내가 아닌 '우리'에서 비롯된다.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닌 부분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이다.

[고린도전서 13:9-10]

9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10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4) 2017년은 모든 영역에서 치우쳐진 한 날개에서 벗어나 다른 한 날개를 꼭 장착하는 시간이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야 한다.

(5) 겸손의 자세는 구체적으로 배우려 하는 자세이다.

가르치려 하지 말고, 더 듣고 경청하는 실제적 태도가 필요하다. 또한 나 뿐만이 아니라 나와 다른 '우리' 모두가 소중한 존재라는 긍정적 태도로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6) 부부가 하나가 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고, 교회 안에 성령과 말씀이 균형을 이루어 하나가 되어, 2017년 독수리의 큰 두 날개로 비상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자.